

전통주거공간의 환경친화적 설계기법 추출 및 현대적 적용

- 경상북도 독락당을 사례로 -

허준* · 송병화**

*동신대학교 조경학과 · **우송정보대학 플라워코디 · 조경과

A Study on the Environmentally-friendly Design Techniques Extract and Applying Modern of Traditional Residential Area

- The Case of Dokrakdang in Kyungbuk Province -

Heo, Jun* · Song, Byeong Hwa**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Dongshin University

**Dept. of Flower. Floral Plant Coodi & Landscape Architecture, Woosong College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a traditional residential area in the environmentally friendly design techniques to identify the techniques and principles that have been carried out to reestablish the principles. To do this, through literature review environmental performance is reflected in the traditional residential area side of resources conservation, locational aspects, spatial configuration, and how cases were selected looking for ways to apply modern. Are examples of upper class housing in the Chosen Dynasty Period period construction relatively well-preserved round and a good building with a clear housing Dokrakdang year were selected. Locational aspects of the terrain with minimal changes to the building and construction techniques were entirely in terms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environmental temperature was adjusted to regulate the room temperature technique could be seen. In terms of cycling in natural materials were recycled. and water make used of positive through water cycling technique & water control.

In addition, the importance of landscape views overlooking the landscape from inside to outside through the regulation of the various internal and external space technique was used to attract and expand.

Traditionality in the pursuit of modern space, simply cut off because of tradition rather than to restore or recover the organizing principle inherent in the traditional space, and extraction of the contemporary social, cultural and environmental understanding of space is acceptable in basis.

Environmentally-friendly design techniques in a traditional residential area for a long time to be developed by the experience of its application of modern environmental and energy problems and pleasant environment to the creation of human life and are subject to significant swings in that.

Key Words : Environmentally-friendly, Traditional Residential Area, Material Recycling, Nature Material.

국문초록

본 연구는 전통주거공간 속에서 환경친화적인 설계기법과 원칙을 파악하여 그 원리를 재정립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서 문헌연구를 통해 전통주거공간에 반영된 환경친화성을 자원보전적 측면, 입지적 측면, 공간구성적

* Corresponding Author : Song, Byeong-Hwa, Dept. of Flower. Floral Plant Coodi & Landscape Architecture, Woosong College, Daejeon 300-715, Korea. Phone : +82-10-5441-7916, E-mail : sbh623@wsi.ac.kr

측면으로 구분하고, 사례지를 선정하여 현대적 적용방안을 모색하였다. 사례지는 조선시대에 조영된 상류주택 중 비교적 원형이 잘 보존되고 있으며, 양호한 건축년도가 명확한 주택인 독락당을 선정하였다.

입지적 측면에서는 지형의 변경을 최소화하는 건물축조기법을 하고 있었으며, 환경보전적 측면에서는 열환경조절을 위해 실내 온도를 조절한 기법을 볼 수 있었다. 물질순환 측면에서는 자연재료의 재활용을 하고 있었으며, 수순환기법 및 조절을 통해 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경관조망을 중요시 하여 내부에서 외부로 바라보는 경관의 다양한 조절을 통하여 내부공간을 외부로 확장시키고 끌어들이는 기법을 활용하였다.

현대적 공간에서의 전통성 추구는 단순히 단절된 전통의 복원이나 회복에 있기 보다는 전통 공간 속에 내재하는 구성원리 등을 추출하여 현대의 사회적, 문화적 환경공간에 대한 이해의 바탕위에서 수용 가능하다. 전통주거공간에 있어서 환경친화적 설계기법은 오랜 시간동안 경험에 의해 발전된 것으로 이의 현대적 적용은 지구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인간의 생활환경을 창출해 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주제어 : 환경친화성, 전통주거공간, 물질순환, 자연재료

I. 서론

집을 짓는 행위는 개인의 창작행위를 넘어서 집단적 창조 행위이며 한 사회의 문화적 현상으로 표출되고 있다(Amos Rapoport, 1985). 이러한 문화의미를 지닌 우리나라의 전통주거공간은 역사적으로 계승되어져 온 유형·무형의 문화적 고유성을 간직하고 있는 질서의 흐름으로 해석할 수 있다(신상섭과 광병화, 1991).

전통이란 한 지역의 사회집단이 갖고 있는 역사를 통하여 각 시대를 거쳐서 전승되어오는 현대의 조건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지속적인 가치가 있는 문화적 특성이라 정의된다(구영일과 이재근, 2005). 전통이 가진 지속력과 노스텔지어(nostalgia)적 힘은 우리의 정서에 걸맞는 전통문화의 하나로 친숙함과 안정감을 제공한다. 전통을 기반으로 한 환경은 현대인의 생활 속에 정체성과 독자성을 부여한다(소현수 등, 2006).

오늘날의 주거공간은 전통적인 삶의 가치관을 멀리한 채 서양의 근대화 바람을 타고 우리가 가진 자연과 조화롭지 못한 삶의 공간이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어 우리의 자연에 부합되는 주거계획으로 전회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전통주거공간의 친환경성을 분석하여 한국적 주거계획의 전통성과 정체성을 계승하고 보다 나은 친환경주거공간설계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주급원과 최만진, 2010).

전통주거공간은 입지적 측면, 공간적 측면, 재료적 측면 등에서 우리의 전통적인 자연관인 사상적 측면을 근간으로 하여 인간과 자연이 상호 공존하고 인간이 자연 속에 포함되는 환경친화적인 기술 및 방법으로 조성되었다. 본 연구는 전통주거공간 속에서 환경친화적인 설계기법과 원칙 및 원리를 파악하여 그 원칙들을 재정립하고자 수행되었다. 또한, 이러한 환경친화적 기법 추출 및 원칙정립을 통하여 현대 주거단지나 주택의 계획 및 설계, 시공에서 주요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환경친화

적 기법 속에 물리적 형태뿐만 아니라 전통 공간 속에 내재하는 구성원리 등을 환경친화적 이해의 바탕위에서 적용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의 범위 및 진행

본 연구는 16세기 초 조선의 명현인 회재 이언적이 짓고 수년간 거주하였던 독락당(보물 413호)과 이를 포함한 주거일괄(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일대)을 대상으로 하여 전통마을에서 유추된 주거단지의 환경친화적인 개념들을 파악하여 환경친화적 기법 연구에 적합한 요소의 도출을 위해 수행되었다. 내용적 범위로는 전통주거공간에서 유추된 환경친화적 개념들을 정리하여 대상지에 반영된 기법을 파악하고, 이의 현대적 적용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진행은 문헌연구를 통해 개념 정립과 이론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현지답사를 통해 사례지역의 현황을 파악한 후 연구의 분류체계를 정립하여 환경친화적 기법의 요소를 도출하였다. 이후 사례지를 대상으로 전통주거공간에 반영된 환경친화성을 자원보전적 측면, 입지적 측면, 공간구성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현대적으로 계승시키기 위한 적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수행되었다.

2. 환경친화적 설계기법 분류

선행 연구 사례분석을 통해 전통주거지역에 나타난 환경친화적 계획개념은 입지선정, 미기후조절 및 에너지절감, 폐기물순환·재이용, 생물 다양성, 수자원 순환, 산림·농경지 보존, 자연요소의 활용 및 관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은주와 류호창, 2002; 이승민과 최기수, 2002; 김은희, 2001; 현중영과 박찬

용, 1998; 한필원, 1996; 이경희, 1994; 신상섭과 광병화, 1991). 한필원(1996)은 경북 김천시 구성면 상원리 원터마을을 중심으로 전통마을의 생태학적 해석을 통해 환경친화적 주거단지를 입지 선정, 산림·농경지 보존, 수자원 순환, 생물(서식지)다양성, 폐기물 순환·재활용, 미기후조절 및 에너지 절감, 자연요소 활용 및 관리의 7개 요소로 구분하여 전통마을을 해석하고 있다. 김은주와 류효창(2002)은 풍수사상에 기반하여 전통주거공간에서는 채광과 통풍, 자연환기에 관한 조건으로 자연광을 최대한 이용하고 바람을 조절하기 위한 고려가 입지조건에서부터 실내공간계획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연구하였다. 신상섭과 광병화(1991)는 전라북도 전통상류주택인 김동수, 이용재, 권희재 가옥을 중심으로 입지성, 배치, 장치적 요소와 공간구성, 지형조건 등을 통해 전통주택에 내재하고 있는 역사경관의 보존, 현대와의 접목과 같은 조경요소를 발전적으로 규명해 나가기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현중영과 박찬용(1998)은 조선시대 전통주택 풍수의 좌향에 대해 양동마을을 중심으로 지형조건과 주택의 향과의 관계, 주택유형에 따른 주택의 좌향 등을 연구하였다. 표 1은 상기의 선행 연구에서 추출된 연구방법론을 통해 우리나라 전통주거공간에서의 환경친화적 계획개념에 적용된 주요 항목과 요소들을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 적용된 환경친화적 설계기법 분류는 선행 연구 사례분석을 통해 추출된 표 1을 근거로 하여 대상지 현황분석을 통해 제시된 자연자원요소, 입지요소, 공간적 측면의 구성원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제시하였다(표 2 참조). 입지적 측면과 공간구성적 측면을 구분한 이유는 입지적 측

면은 입지적 타당성에 내재된 사상적 배경, 내부공간과 주변 지형·지세, 경관과의 관계 등을 전제로 한 분류항목이며, 공간구성적 측면은 내부적 공간에서의 공간의 통합과 분리, 개방과 폐쇄 등을 전제로 한 항목으로 차별성을 두기 위해 구분하였다.

3. 연구대상지 개요

본 연구는 조선시대에 조영된 상류주택 중 비교적 원형이 잘 보존되고 있으며, 양호하고 건축년도가 명확한 주택인 경상북도 안강읍 옥산리 일대의 독락당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독락당은 회재 이언적이 42세 되던 해인 1532년에 김안로의 등용을 반대하였다는 이유로 좌천·파직된 후, 은거생활을 하기 위해 지은 곳이다. 독락당이 입지한 계정마을은 서북쪽에 도덕산(道德山), 북쪽에 안태봉(安胎峰), 남쪽에 무학산(舞鶴山), 동쪽에 어래산(魚來山), 서쪽에 자옥산(紫玉山)이 마을 주위를 둘러싸고 있으며, 마을의 동쪽으로는 자계(紫溪)가 흐르고 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동심원적 공간구조에 자계를 중심으로 한 선적인 공간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 중심부에 독락당이 위치한다. 독락당을 중심으로 상류에서 하류로 1km 내에 징심대(澄心臺), 탁영대(濯纓臺), 관어대(觀漁臺), 영귀대(詠歸臺), 세심대(洗心臺) 등 절점에 해당하는 오대(五臺)를 설정하였는데, 이는 이언적의 일상생활의 공간한계이다(그림 1). 훗날 세심대에는 옥산서원이 건립되게 되는데, 이는 조선 중기 서당이나 정사를 중심으로 기능을 확장하여 서원으로 발전하는 유형

표 1. 전통주거지역의 환경친화적 개념을 통한 환경친화적 기법요소 분류

전통주거지역의 환경친화적 계획개념		(대)분류 항목	(중)분류 항목
입지선정	자연조건 해석	입지적 측면	기후·지형, 경사, 사상적 영향, 자연과의 조화성
미기후조절 에너지 절감	녹지·건물계획	자원보전적 측면	건축물 배치, 에너지 손실방지/보존
폐기물 순환·재이용	농경지 중심	자원보전적 측면	물질순환체계(유기성 폐기물 퇴비화)
생물(서식지) 다양성	토지이용의 복합성	공간구성적 측면	토지이용방식
수자원 순환	적정경사 수로와 연못	자원보전적 측면 공간구성적 측면	물질순환체계 주거건축의 공간구성 요소
산림·농경지 보존	주거지 범위 한정	입지적 측면	주거지 내부 및 외부자연조건
자연요소 활용·관리	접근성, 상징성	입지적 측면 자원보전적 측면	건축물 외부공간 재료

표 2. 환경친화적 기법의 세부요소 추출

대분류	중분류	세부요소
자원보전적 측면	자연에너지의 활용	• 일사 및 일조 • 열환경(온열환경, 냉방) • 통풍 및 환기시스템 • 방수 및 방습조절
	자연재료의 활용	• 흙재료의 이용 • 목재의 이용 • 석재의 이용 • 기타 재료의 활용
	물질순환체계	• 수자원의 순환(수자원 확보) • 자연정화체계(우·오수의 처리) • 유기성폐기물의 순환방식
입지적 측면	사상적 측면	• 풍수지리설 • 좌향론
	지형적 측면	• 경사 및 표고
	자연환경 및 경관적 측면	• 건축물의 배치관계 • 수로, 도로 • 경관(조망)적 측면
공간구성적 측면	공간구성원리	• 대지의 조건에 있어서의 공간배치 및 평면구조의 측면에서의 환경친화적 기법의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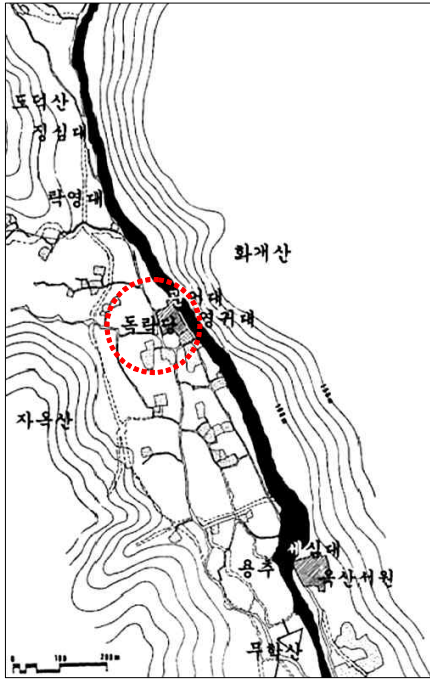


그림 1. 독락당과 사산오대

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독락당의 공간구성은 크게 생활공간과 학문수양공간, 자연 공간으로 구성된다. 생활공간은 안채를 중심으로 한 생활기능의 공간과 솜방채를 비롯한 서비스공간으로 구성되며, 학문수양공간은 독락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공간이다. 그리고 자연 공간은 자계를 중심으로 관어대, 영귀대, 죽림, 송림 등으로 구성된 공간이다. 독락당의 구성은 안채와 사랑채, 정자, 전면의 고수간과 솜방채의 4영역으로 이루어지며, 사당 등 부속건물이 첨가된다. 독락당의 안채는 주부(안방), 며느리(머리방), 할머니(안사랑), 아이(서넛방)들이 거처하던 곳이다, 안사랑 남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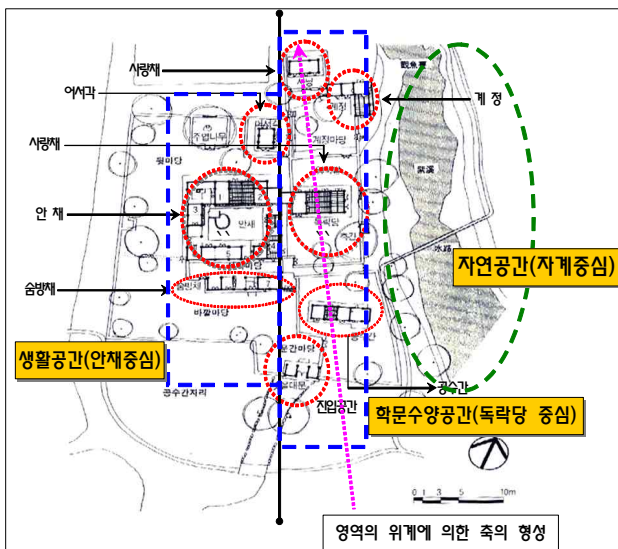


그림 2. 독락당 일곽 평면 배치도

바깥벽에는 ‘역락재(亦樂齋)’라는 현판이 걸려 있으며, 남쪽 세 칸의 고간은 셋마당으로 통하는 마구간이었다. 자계를 끼고서 놓여진 계정은 정자로 1620년경 소실된 것을 1650년에 복축한 것이다(그림 2).

독락당 건물은 이연적이 낙향하여 추가로 건립된 것으로 전통주거건축에서 볼 수 있는 사랑형식으로 존재하지만, 전체의 배치로 볼 때 주위를 둘러싼 겹겹의 건물과 담으로 인해 독립성을 갖는다. 이곳은 계정과 계류가 위치하는 자연공간으로만 개방되는데, 이는 이연적의 은거와 관련된 배치계획의 측면을 볼 수 있다. 독락당의 의미는 ‘홀로 즐겁다’는 뜻으로 회재가 유림사회 일가친척들의 고향마저도 외면하고, 자계 골짜기 무인 지경에 은거하여 개인화된 자연만이 주된 교류 상대가 되는 것으로 사마광의 독락과 같은 일맥으로 해석된다.

Ⅲ. 독락당의 환경진화적 설계기법 추출

1. 입지적 측면 분석

1) 사상적 측면

풍수적으로 독락당은 긴 계곡의 중간지점 평지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주산이나 안산이 없는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회재가 주변지형에 명명을 하여 풍수적 여건을 갖춘 곳이다. 이것을 사산오대(四山五臺)¹⁾라고 명명하여 환경적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의미를 부여하고 끌어들이므로써 입지적 특성을 갖춘 곳이다. 공간구조적 측면에서 볼 때 독락당은 비교적 평지의 배산지형(背山地形)입지에 양택(陽宅)된 건물이다. 좌향적 측면에서 보면 임좌병향(任坐丙向)²⁾으로 정남향에서 동쪽으로 15° 돌아서 배치되어 있다.

2) 지형적 측면

독락당 일곽은 해발고도 약 35~40m의 경사가 거의 없는 평지에 위치하며, 동북쪽에 다락골, 세심대 위 동쪽이 미산골, 서원 뒷산의 약목골, 백골 등 골짜기의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조건은 독락당 일곽의 은폐적인 평지성에 원초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도덕산과 자옥산이 위치한 독락당 일곽의 서쪽과 화익산의 산맥이 흐르는 독락당 일곽의 동쪽과의 사이는 약 300m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며 흐르고 있다. 화익산의 끝자락에는 안태봉 아래에서 출발해서 흐르는 자계(紫溪)가 있기 때문에 건물을 짓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고, 주택을 조성하기란 향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독락당 일곽은 주산이 배면에서 위치해 있지 않고 자계와 나란하게 배치되어 있으므로 산지에 있으면서 그 산지에 경사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고 있는 은폐적인 평지이다. 독락당 일곽의 채의 배치는 동심원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안마당의 왼편에 독락당, 계정 및 사당 등이 같은 영역에 위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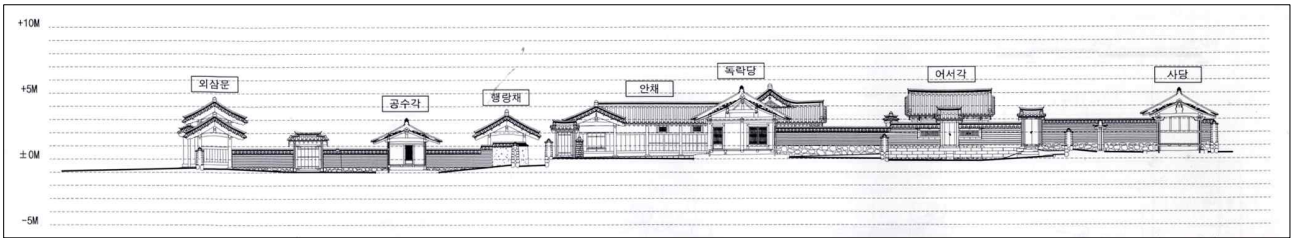


그림 3. 독락당 일곽의 단면도
(자료: 독락당 실측자료)

평지에 입지하는 관계로 전면의 의상문과 후면의 사당과의 표고차는 1m 내외를 나타내고 있다(그림 3). 즉, 무첨당 일곽의 전체 배치와는 달리 기존의 질서를 따라 자연친화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첨당 일곽의 경우 지세에 의해 무첨당 안채와 사당의 좌향이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독락당 일곽의 경우 주위에서 단아하고 빼어난 산을 선택하여 그 방향으로 집의 축을 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주어진 지형조건을 극복하여 기존의 질서를 따르고자 했던 건축적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이는 기존의 가치관을 따르거나 어느 하나만을 고집하기보다는 주어진 자연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변형시켜 건축가의 창의적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자연환경 및 경관적 측면

독락당 주변인 옥산1리, 옥산2리는 서원마을과 계정마을로 구성되어 있으며, 옥산1리 도화동의 경우는 독락당 북쪽 안태봉 아래에 위치한 마을로서 도화동은 중국 무릉도원에서 연유된 것으로 보아 복숭아나무³⁾가 많이 붙여진 이름이다. 주변 산세도 그렇듯이 독락당 주변에는 산과 하천, 바위 등의 자연자원 및 경관자원이 많이 분포하며, 편역에서도 관련된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다. 독락당 대청의 현판 2개를 제외한 15개의 편역들이 걸려 있는데, 편역의 내용은 주로 독락당에 관련된 고서이며, 해서체와 초서체를 음각한 것이다. 여기에 보면 자계16영(紫溪十六詠)⁴⁾을 비롯하여 독락당 14영(獨樂堂十四詠)⁵⁾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그 외에도 많은 시편들이 소개되고 있다.

경관적 측면에서 주변 자연요소와 인공요소를 활용하는 측면은 공간의 조절기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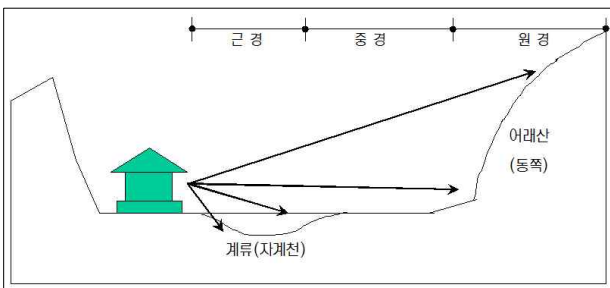


그림 4. 독락당의 입지에 따른 경관구조

자연환경과 점경물을 바라보는 경관의 구조는 대상의 위치와 거리에 따라 달라지는데, 독락당에서는 계정과 인접하여 형성된 근경은 대체로 시선의 하단부에서 형성되며, 주 경관요소로는 계류인 자계천(紫溪川)을 포함한 수경요소, 바위, 수로, 천변의 수초 등의 수공간을 요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있다. 중경은 시선의 중단부에서 형성되며, 어느 정도 거리를 둔 점경물이 경관의 대상이 되는데, 주요한 경관요소는 수목과 바위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원경은 시선의 상단부에서 형성되며, 주로 바위봉우리, 안산, 하늘을 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그림 4).

2. 자원 보전적 측면 분석

1) 자연에너지 활용 측면

일사 및 일조측면에서 독락당을 보면 정면 4칸, 측면 2칸의 남동향의 좌향을 가진 건물배치 및 평면구성으로 여름철 일사 및 일조에 유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열환경 측면에서는 겨울철 보온 및 단열과 여름철의 냉방을 위한 활용적 측면으로 겨울철 온열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사랑방에 온돌을 사용하였으며, 대청마루 바닥도 현재는 우물마루이나 변경전은 온돌구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창호는 창과 문의 총칭으로 창문과 문으로 나눌 수 있고 창문은 세부적으로 채광, 통풍, 조망을 위해 달고, 간혹 출입을 하기도 한다. 독락당에서 이러한 용도로 쓰인 창문의 종류는 세살창문, 격자창문이다. 세살창문은 2짝이 1조로 문짝끼리는 위치에 따라 천차만별로 조사되었다. 가로는 685~742mm이고, 세로는 1,222~1,447mm 정도이며, 살의 개수는 가로살 9~15개, 세로살은 상·중·하로 구분하여 5-6-5, 6-7-6, 3-4-3의 패턴이 사용되었다. 격자창문은 독락당과 안채 사이에 덧달아낸 서고로 쓰던 마루방의 환기창으로 전·후면에 1짝이 달렸으며 이 창은 들어열개 방식이다.

2) 물질순환 측면

물은 식수, 방화용수, 세탁·목욕 등 생활용수, 그리고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중요한 자원으로 그것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 입지조건으로 그에 따라 전통마을은 대개 수자원이 원활히 확보되는 입지에 위치한다. 독락당이 입지한 계정마을과 서원마을도 안태봉을 중심으로 옥산저수지⁶⁾가 총 저수량은 2,316,000m³



그림 5. 자계천의 모습



그림 6. 자계천- 독락당 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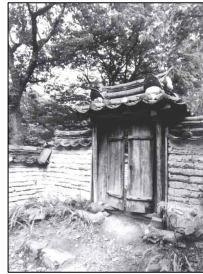


그림 7. 계정담장의 자연재료(출처: 독락당 실측조사보고서)



그림 8. 계정기단부의 자연재료 이용 (자료: 필자 촬영)

의 수량을 확보하고 있어 농업용수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독락당 동쪽으로 자계천이 흘러가는데, 이는 낙동정맥인 성법령에서 옥산리와 양동리로 갈라지는 곳에서 연결되어 양동리의 안락천과 함께 형산강으로 흘러드는 수계를 형성하고 있다(그림 5). 자계천은 수량이 풍부하고 계곡에서 발원되어 내려오는 하천으로 식수로도 활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자계천 건너 계곡에서 배수로를 설치하여 집안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기법을 사용하였고 독락당 일곽에는 연못을 두지 않고 있다.

독락당에서 건너편 계곡에서 독락당으로 인위적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수로⁷⁾를 설치하여 수자원을 공급하고 있다. 현재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조성이 되어 있으나, 독락당 관리자 인터뷰를 통해 조영 당시는 통나무를 이용하여 수로를 만들었을 것으로 확인하였다(그림 6).

3) 자연재료 이용측면

독락당의 내·외부 공간에서 사용된 자연재료는 크게 흙(멩개, 모래, 진흙, 잔흙), 목재, 석재(섬돌, 노뚝돌, 주춧돌, 석가산, 대리석, 오석류, 물חק 등), 수목 등 크게는 4가지 재료가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시대를 흘러오면서 보수를 통하여 환경친화적 재료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원형복원측면에서 다소 이질성도 보이고 있는 경우가 발생한다.

흙의 이용은 전통공간에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재료로써 열용량이 크고 공기를 통하게 함으로써 내·외를 하나의 생태계에 담아내는 역할을 한다. 또한 습기를 빨아들이고 습기가 적을 때에는 내뿜음으로써 여름과 겨울철의 쾌적한 생활을 유지시켜 줄 뿐만 아니라 낮의 일사를 축열하고, 밤에는 복사열을 통하여 실내에 열을 전달함으로써 한낮의 시원함과 밤의 따뜻함을 유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공간의 이용측면으로 본다면 건축벽면, 담장, 화계, 굴뚝 등에 수직적 공간에 이용되며, 진입도로, 마당과 뜰, 연못과 수로, 방바닥(온돌) 등은 수평적 공간에 이용되고 있다. 또한 기단상부의 삼화토 다짐, 계정협문의 한식 담장, 계정기단의 자연석 허튼층쌓기 사이를 흙 반죽으로 사춤하는 것 등에 이용되고 있다. 흙의 이용은 단독으로 이용되기 보다는 석재와 함께 혼합하여 이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한식 담장의 하단부 자연석, 상부의 기와 등과 조합되어 주변 경관 및 건축물과 어울리는 담장이 형성된다(그림 7). 현대적 측면에서 볼 때 흙은 자연 기반재료로서의 생태면적을 확보, 도시열섬현상의 완화, 태양열 흡수를 통한 알베도 저감 및 저

탄소 배출 소재 등의 기상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흙의 질감 및 색채에서 오는 심미적인 요소로서 역할도 한다.

전통공간에서의 목재 사용에 대한 기준은 홍만선의 산림경제에 나타나는데, 목재의 선정 및 벌목시기 조건 등에 대해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전통주택에서 건축물 축조의 대부분이 목재로써 소나무(적송)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천년을 버틸 정도로 뛰어난 내구성을 지니고 있다. 전통건축에서의 건축하중 등에 대한 측면에서도 적합한 소재로 널리 이용된다. 독락당도 보수공사를 통하여 안채, 사랑채, 계정의 보수를 실시하였는데, 이 때 부식된 심방목을 교체하고 독락당 동측 담장의 살창 교체 및 계정 배면 난간 안쪽의 파손된 홍살도 보수하였다.

석재는 독락당 앞 담장, 공수간 뒤의 토석담장, 계정을 가로지르는 수로, 계정 앞 자계의 반석, 기단의 자연석 허튼층쌓기, 주초석, 디딤석, 온돌방의 구들장 등에 사용되었으며 건축물 외부 공간에서는 점경적이고 장식적인 요소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기단부 3면에 걸쳐 자연석 허튼층쌓기를 하고, 기단 상부는 삼화토로 다졌다. 정면 기단 앞에는 자연석 판석을 이용한 디딤석을 설치하였는데, 크기는 우측 디딤석 420mm×390mm, 좌측 디딤석 560mm×430mm, 높이는 150mm 가량이다. 독락당 건물에 사용된 초석은 정형화된 기법이 있거나 규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부속건물인 계정의 기단도 높이 2,110mm 가량으로 자연석 허튼층쌓기를 하고 흙을 반죽하여 사춤하였다. 또한 외부공간에서도 자계천의 반석, 너럭바위 등이 주변 건축적 요소와 조화되어 주요 경관자원으로서 이용되고 있다(그림 8).

수목은 자연재료로서 전통주택정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재료의 하나이다. 특히 수목은 수목 자체로서의 아름다움과 생동감, 그리고 주변자연과의 조화를 도모하는 중요한 기능 이외에 수목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길흉화복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중요한 상징물⁸⁾로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독락당 일곽에 있어서도 안채 뒤뜰 담장에 중국주엽나무가 있으며, 배면에 위치한 송림은 풍수지리적으로 현무의 역할을 위해 조성된 비보림으로써 소나무와 상수리나무가 어울려 있다. 그 외에도 정원 곳곳에 감나무, 산수유 등의 유실수를 비롯한 많은 수목들이 식재되어 있다.⁹⁾ 이러한 수목들은 또한 그늘을

제공하고 바람을 막아주는 방풍의 기능 등 미기후를 조절해 주는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건축의 인공미에서 나타나는 직선적인 선이나 면적인 부분들을 완화, 차폐시켜 자연 속에 동화시키는 순기능적 역할도 동시에 한다.

3. 공간 구성적 측면 분석

1) 공간조영의 특성

독락당은 이렇다 할 풍수적 특성이 없는 곳에 회재가 입지를 선정하여 거주함으로써 주변 자연경관에 의미가 생김과 회재가 이러한 자연경관을 적극적으로 공간에 끌어 들였다. 즉, 이곳은 사회적 제약이 없이 조영한 공간이다.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독락당은 자연경관 전체를 정원화하고 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자연경관을 이용했지만, 외부에 대해서는 폐쇄적이며 비가시적인 특성을 갖는다. 또한 인공구조물에서 여성공간은 은폐된 구조를, 남성의 공간은 개방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회재의 유교사상에서 연유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조경구조물인 담과 마당은 내부가 보이지 않는 높은 담과 □자형의 마당으로 그 정형성을 유지하고 있어 건물에서와 마찬가지로 은폐된 미로형의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동선을 따라 움직이는 시각체험의 구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은폐되고 폐쇄적이어도 회재 조경공간의 공통적인 특성은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자연경관을 공간에 끌어들이는 점이라 할 수 있다.

2) 담장-마당-자연과의 연계

독락당의 마당은 동서남북 4면이 높은 담에 의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독락당 내에서도 다른 공간과 분리되어 있다. 마당은 독락당 건물에 의해 남쪽의 사랑마당과 북쪽마당으로 분리되며, □자형의 남쪽 마당은 시선차단을 통해 폐쇄적이고 정형적인 마당을 구성하고 있다. 폐쇄적인 마당과 달리 동쪽담의 살창¹⁰⁾을 통하여 사랑대청에서는 자계를 볼 수 있으며, 이 살창을 통해 독락당은 자계와 직접 연결된다. 이러한 특성은 계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계정도 독락당과 마찬가지로 높은 담에 의해 4면이 둘러싸여 있고 독락당의 다른 공간과 분리되어 있다. 계정은 자계쪽으로 트여진 계정마루를 통해 자연과 연결되고 있으며, 독락당에서의 담은 건물에 부속된 종속적인 요소가 아니라 담 자체의 공간구성요소로서 적극 이용된다. 독락당에서 공간구성의 정면은 바로 동쪽의 계정이며 즉, 자연을 향해 열려있는 정자인 계정을 통해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입구임을 의미한다.

IV. 전통주거공간 환경친화적 기법의 현대적 적용

1. 현대적 공간의 적용 필요성 및 적용상의 문제점 저감

1) 적용 필요성

전통이란 지난날로부터 이어 내려오는 사상, 관습, 행동 따위의 양식 또는 핵심을 이루는 정신을 의미하며, 현대조경에서의 전통성 추구는 과거, 현재, 미래를 이어주는 연속선상에서 현대적인 재해석과 재창조를 병행하는 과정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전통계승 방법론은 전통요소의 형태적 모방에 의한 방법, 형태의 분화에 의한 방법, 조경사상에서 출발하는 방법, 공간기능의 구성을 파악하는 방법 등이 있다(양병이, 1991).

전통주거공간에서 도출한 환경친화적 기법의 현대적 적용이란 단순히 물리적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전통 공간 속에 내재된 구성 원리 등을 추출하여 현대의 사회적, 문화적 환경공간에 대한 이해의 바탕 위에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신상섭과 이명우, 1998).

현대에 조성되는 조경공간이나 주거단지, 개별건축물 등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자연을 극복하고 인간의 편리함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계획 및 설계, 시공이 이루어지다보니 인공환경의 지배적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70년대 새마을사업의 전개로 건설 붐이 일어나면서 획일적인 콘크리트 구조물에 의한 조성사업들이 자랑처럼 여겨지는 시대에서 90년대 중반부터 환경친화적 개발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높은 수준의 환경친화적인 계획, 설계,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아직도 계획적인 개발이나 시공외의 많은 부분에서 기술적인 문제나 마인드의 부족으로 환경친화적 기술은 많은 발전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주거공간에서 나타나는 환경친화적인 기술이나 기법들을 현대적 공간에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자연훼손의 저감, 에너지의 절약,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적용방안을 모색하였다.

2) 적용상 문제점 저감

전통주거공간에서 나타나는 환경친화적 기법을 현대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 키치의 일반적 속성인 대중성, 상업성, 과도한 장식성, 역사양식의 차용과 절충주의 등을 통한 전통조경 요소가 변용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된 부정적인 면을 감소시키고자 했다(표 3).

전통조경의 현대적 적용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면을 감소시키려면 부적절한 요소의 키치적 변형에 의한 오류를 피해야 한다. 또한, 주변환경과의 관계나 장소성 등 부지의 맥락을 무시하지 않아야 하며 과장의 요소나 유희적 요소, 문화적 요소의 남용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표 3. 전통조경요소의 키치적 변용항목 및 세부내용

변용항목	세부내용
부적절/부적합 요소	· 복원과 재현에 충실해야 하는 사적지에 키치적으로 변형되어 도입된 전통조경요소들은 외국인 및 일반인들이 한국의 전통성을 이해하는데 그릇된 방향으로 유도하는 오류를 제공할 수 있다는 문제점 내포
축적/과잉요소	· 과도한 장식 또는 과잉적 이미지 · 희소성이나 미적인 측면에서 아무런 가치도 없는 사물들을 그저 ‘많이’ 배열해 놓은 것을 통해 그저 색다르고 특별한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전달
상투적 채적함/향수의 요소	· 수동적이고 단층적 미적 감수성, 알박한 이해에 부합 · 주변환경과의 관계, 장소성 등 부지가 갖는 맥락 무시한 채, 상투적으로 전통성과 향토성을 강조하며 무원칙적으로 도시공간에 적용하는 태도
과장의 요소	· 상식을 벗어나는 과장된 크기로 표현 · 전통조경요소의 크기를 과장하여 도입하는 키치 이미지 이면에는 그 크기와 비례하여 자신의 존재를 강조하고자 하는 상업적 의도가 크게 작용
유희적 요소	· 전통조경요소가 만화적이고 희화화된 모습으로 변용되어 현대인의 일상에 도입 - 무섭고 엄한 얼굴의 장승→웃는 얼굴 -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보신대장군, 보신여장군 - 남근식→위치, 주변환경, 주술적 의미 무시한 채 성적 유희의 키치적 속성 강조
모자이크 문화적 요소	· 이국적 정서, 토착적 정서, 전통지향과 미래지향, 영웅주의와 신평조 등과 더불어 종교적 요소 등 다양한 문화요소가 공존된 이미지로 반영

자료 : 홍형순 외 2인(2002) 전통조경요소의 키치적 변용과 그 양상. 한국조경학회지 20(4): 66-78 참조하여 작성함

2. 환경친화성을 고려한 현대적 적용방안

전통주거공간에서 찾을 수 있는 환경친화성의 기본개념은 친환경과 친인간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공존함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환경의 의미를 자연환경에 국한하지 않고 생활과 문화, 사회적 조건, 인간 활동과 관련된 조건을 부가된 환경친화의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류지원 외 2003). 따라서 친환경적 설계기법은 자연요소의 순환적 흐름이 단절되는 것을 최소화하여 생태적 흐름을 유지하고 자연환경과 조화되고 보전함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차원의 환경과 공생의 관점에서 긴밀하게 연계하여 상호접촉 기회를 확보하는 것으로 주거공간의 배치 및 설계기법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통한 환경친화적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적 공간에서의 전통성 추구는 단순히 단절된 전통의 복원이나 회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통양식과 현상이 보여주는 물리적 형태보다는 전통 공간 속에 내재하는 구성 원리 등을 추출하여, 현대의 사회적·문화적 환경공간에 대한 이해의 바탕 위에서 수용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자연에너지 활용측면이나 물질순환측면, 자연재료 이용측면에 대한 적용가능인자를 현대적 공간에 접목시키기 위한 기술적인 원칙 등을 정립하고, 공간상에 적용시키기 위한 방안들에 관한 대안적인 적용기법이나 적용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표 4).

독락당에서 추출한 환경친화적 설계기법은 먼저, 좌향적 측

표 4. 독락당의 환경친화적 기법 및 현대적 적용

독락당의 환경친화적 기법	현대적 적용방안
· 좌향적 측면에서의 남동향 입지	· 현대에서도 적용(남향, 남동향 선호)
· 배지에 있어서의 자연지형 활용	· 절성도 최소화, 구릉형 주거단지 조성 · 자연지형을 활용함으로써 주변자연환경의 보존 및 조망경관의 확보 가능
· 사랑채 및 누마루에서의 조망성 확보	· 조망경관지구 지정 등을 통해 조망성 확보 · 개별건물 및 집합주거단지에서의 조망성 확보를 위한 통합적 차원의 경관관리방안 시행 및 보완
· 열환경측면에서의 온돌구조, 방의 심벽구조	· 온돌을 현대적 적용에 맞게 개량형으로 보급 · 방의 단열을 고려하여 벽체두께 조절 및 외풍을 방지하기 위한 황토 및 자연소재의 개발 및 보급 확대 · 옥상이나 인공지반 녹화의 확대를 통한 단열 및 냉난방효과의 확대방안이 필요
· 건축공간에서의 바람통로(대문간-안마당-안대청)를 확보	· 아파트단지 등 대규모 주거단지에서의 바람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단지배치기준 및 법적인 기준 등이 요구됨
· 물질순환 - 유기성 폐기물 퇴비화 - 자연정화기법, 건축부산물의 재활용/재이용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기술의 개발 및 적용 · 음식물 쓰레기 등의 퇴비화
· 자연재료의 활용(담장, 도로, 벽체 등)	· 도로에 이용하중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 소재인 흙을 이용한 다양한 포장공법의 개발 및 보급 · 마당이나 담장 등의 자연재료를 통한 태양복사열 저감 및 투수성의 확보

면에서의 남동향 입지를 들 수 있다. 독락당의 좌향(坐向)은 임좌병향(壬坐丙向)으로 정남에서 동쪽으로 15° 돌아 앉아서 무학산이 안산이 되고, 서북의 도덕산이 주산이 된다. 15° 정도 틀어져 있는 것은 팔간과 일치하여 주택에서 절대음영이 생기지 않도록 방향을 정한 것(정윤영 등, 2011)으로, 이는 현대에서도 남향이나 남동향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적용될 수 있다.

독락당 일곽은 낮은 입지와 수평적 저층 건축으로 내외부의 시선을 은폐하여 처리하고, 측면의 자계를 향한 다양한 개방적 처리를 방법을 통하여 건축공간과 자연을 연결하였다. 계정의 정면을 마당이 아닌 측면자계로 향하게 하여 넓게 개방된 누마루를 통해 건축 내부에 적극적으로 자연을 끌어 들여(김봉렬, 2006),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절성토를 최소화하고 구릉형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자연지형을 적극적으로 활용, 주변 자연환경의 보존 및 조망경관의 확보로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개별건물 및 집합주거단지에서의 조망 확보를 위한 통합적 차원의 경관관리 방안의 시행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열환경측면에서의 온돌구조나 방의 심벽구조는 자연생태계의 일부로서 존재하는 주변 환경에 순응하는 건축으로 자연에너지의 이용을 극대화하여 인간에게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후디자인의 개념으로부터 시작되어 실내기후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자연형 방법과 설비형 방법이 있다. 독락당에서 활용한 자연형 방법으로는 건물의 밀집, 위치 및 배치 등으로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 발생하는 공간의 미기후를 적절히 조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문간-안마당-안대청으로 바람의 통풍이 가능하도록 한 구조적 배치에서 알 수 있었다. 또한 사랑대청 누마루의 들어열개 창으로 공기유입이 가능하게 하고 있었다. 한편, 설비형 방법으로는 겨울철 보온효과를 위해 사랑방에 이중창 구조를 도입하고, 난방으로 온돌구조와 벽재료로 목재와 흙을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항은 바람통로 확보를 위한 단지배치 및 온돌의 개량, 옥상이나 인공지반 녹화의 확대 등을 통해 현대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물질순환의 측면에서는 기단, 초석, 기둥 등에서 돌과 목재 등 자연재료를 재활용하는 것과 유기성 폐기물을 퇴비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적용한다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기술개발과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친화적 기법의 현대적 적용은 지역환경과 기상, 기후의 계절적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건물의 공간구성, 전체와 조화된 환경친화적 축조기법, 재료의 선택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전통주거공간에서 활용된 환경친화적 기법은 자연환경을 적절히 이용함으로써 에너지의 소비와 환경오염을 줄이며 외부공간의 쾌적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조경가의 조경설계 과정에서 공간의 형태, 방위, 인접공간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공간을 창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으로 입지적 측면에서 좌향적인 측면에서는 남동향을 취하여 일사 및 일조의 환경조절 측면을 고려하여 배치하였으며, 지형의 변형을 최소화하는 건물축조기법으로 조성을 하였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환경보전적 측면에서는 열환경조절을 위해 이중창을 설치와 맹장지를 발라 실내 온도를 조절한 기법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물질순환 측면에서는 자연재료의 재활용과 수순환기법을 이용한 물의 적극적 활용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경관(조망)을 중요시 하였으며, 내부에서 외부로 바라보는 경관의 다양한 조절(담장의 조절, 살창 설치)을 통하여 내부공간을 외부로 확장시키고 끌어들이는 기법을 활용하였다.

전통주거공간에서의 환경친화적 기법들은 시대적 상황과 목적에 부합하고, 이용자의 이용행태에 맞게 개발되고 발전된 것으로 사상적 측면(풍수지리적 입지선정 등)이 강하게 작용하여 물리적 형태로 나타난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마을단위로서 보다는 개별주택으로 환경친화적 기법들을 추출하다보니 다소의 한계점이 있다고 하겠다.

전통건축 및 전통공간에 있어서의 환경친화적 기법 및 조절 원리는 오랜 시간동안 경험에 의해 발전되었으며, 지역기후와 지역환경에 적합한 많은 전통적인 기법들로 개발되었다. 이러한 기법들을 추출하여 환경적 타당성, 사회문화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을 달성할 수 있고,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발전시키는 일은 지구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쾌적한 인간의 생활환경을 창출해 낸다는 의미에서 중요하고 그 의미도 크다고 사료된다.

주 1) 사산(四山)이란 화개산(華蓋山), 자옥산(紫玉山), 무학산(舞鶴山), 도덕산(道徳山)을 이르고, 오대(五臺)란 세심대(洗心臺), 관어대(觀魚臺), 탁영대(濯纓臺), 영귀대(詠歸臺), 징심대(澄心臺)를 말한다. 독락당 오른쪽에 위치한 산은 신라시대 어래산(魚來山)이라 하였으나, 화개산이라고 개명하였으며, 해발 563m이다. 독락당 서쪽 산은 자옥산이라 하고 해발 567m이며, 남쪽 산은 무릉산(武陵山)이었으나 무학산이라 개명하였고 해발 433m이다. 또한 독락당 북쪽 산은 득덕산(得徳山)이라 불렀으나 도덕산으로 개명하였으며 해발 703m로 가장 높으며, 주산에 해당한다. 자계천 주변 몇몇 바위에 이름을 붙여 오대를 명명하였다. 계정을 받치는 반석이 관어대이고, 계정 맞은편 화개산 허리를 휘어두른 병풍석은 영귀대라 명명하였다. 계정의 북쪽 자계천 100m 정도 지점의 작은 폭포 주변을 갓끈 씻는 곳이라 하여 탁영대라 이름을 붙이고, 탁영대에서 400m 정도 올라간 자계천 북쪽 일대를 징심대라 명명하였다. 세심대는 옥산서원의 역락문 밖 북쪽 일대의 바위를 세심대라 명하고, 바위 가운데는 '세심대'라고 양각으로 새겼다. 세심대 옆의 폭포를 용추(龍湫)라 하고, 이보다 아래쪽의 서원마을 입구 자계천 폭포를 하용추(下龍湫)라 하였다(문화재청(2001) 독락당 실측조사보고서(본문), p.103).

주 2) 한양의 도읍을 정할 때 무학은 인왕산을 주산으로 하고, 남산과 백악을 좌우의 용호로 하는 좌향, 즉 유좌묘향(西坐卯向)으로 하여 정동(正東)을 향하는 궁궐을 주장하였으나, 정도전은 옛부터 군주는 모두 남면(南面)하여 정사를 보아왔고 아직은 동면하여 조정에 임한 자를 듣지 못했다고 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고수하여 굽히지

않았다. 결국은 좌향을 남면하는 임좌병향(壬坐丙向)으로 정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주택들도 대부분 임좌병향의 배치구조를 가지며, 이는 패철을 이용하여 10간과 오행을 이용하여 좌향을 정하는 방법이다.

- 주 3) 자연물에 내재된 의미로 볼 때 복숭아나무는 이상세계를 상징하며, 장수를 상징한다.
- 주 4) 자계16영이 처음 소개된 것은 1568년 근사재 관원 박계현이 자계16영을 제시하고, 그 후 부(附)하여 현관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자계16영은 자계구곡(紫溪谷口), 용추(龍湫), 세심대(洗心臺), 자옥산(紫玉山), 독락당, 무학산, 계정, 관어대, 영귀대, 정혜사, 징심대(澄心臺), 탁영대, 도덕산, 화개산, 계정, 사자암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계정에 관한 구절을 보면
溪亭(左堂溪亭之男處植以松竹壇先生手種)
朴豪溪亭壓水頭 (소박하면서도 호기있는 계정은 수두를 누르고)
十年心計一荒表 (십년 먹은 계획은 거칠게 한번 나타냈네)
當時手種松魚竹 (선생께서 손수 심은 소나무와 어죽은)
戰勝風霜開幾秋 (풍상을 이겨내고 가을을 영 조짐을 보이는구나)
출처: 문화재청(2002) 독락당 실측조사보고서(본문), pp.80-88.
- 주 5) 소재 노수신(蘇齋 盧守愼)의 독락당 14영시를 1574년에 제시판(題詩板)한 것과 1576년 관찰사 박소립(觀察使 朴素立)이 소재 노수신의 독락당 14영을 차운(次韻)한 시판이 있다. 노수신이 독락당 14영을 살펴보면 자옥산, 독락당, 계정, 관어대, 영귀대, 탁영대, 징심대, 세심대, 연당, 조기, 폭포, 용추, 서원, 자계구곡의 14영을 시로 표현하고 있다.
- 주 6) 옥산저수지는 1957년에 준공되었고 몽리면적(蒙利面積)119정보이고, 제방길이가 130m 정도이며, 1997년에 재축조되었다. 아마도 이 지역이 쌀농사 중심의 곡창지대로서 부족한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근래에 조성된 것이다.
- 주 7) 수로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으며, 폭은 약 45cm, 높이는 30cm 정도로서 자계천 건너편 상류쪽에서 시작하여 자계천을 가로질러 공수간 옆으로 지나가도록 설치되어 있다.
- 주 8) 과거 성리학자들은 자연대상이란 자아표현을 위한 매개물이며, 자연에 대한 명명은 자신의 정신세계가 자연의 인격화를 통하여 표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수목의 경우 소나무는 지조와 의리, 절의(궁자, 논의, 자공편, 세한연후화송백지후조)를 상징하며 또한 장수, 이상세계를 상징한다고 하였다(정철, “근륜산 제일봉에 만장송이 되어 있어...”), 잣나무는 지조와 의리, 복숭아나무는 이상세계(桃花園)를 상징하며 장수를 상징한다.
- 주 9) 안채 뒤뜰 중국주엽나무는 천연기념물 제115호로서 회재의 친구가 사신으로 다녀오면서 선물한 것으로 회재가 직접 심은 나무이다. 지금은 수령이 400여 년 넘어 밀통치가 마르면서도 줄기와 잎이 무성하여 그 기상이 웅장하다. 주엽나무는 높은 기상을 품은 지사(志士)들이 모여 담론하면서 뜻을 살찌게 한다는 고사를 지닌 나무이다. 회재 이언적이 직접 식수한 향나무는 독락당 마당에 위치하고, 산수유나무는 어서각 앞 계정 마당 남쪽에 위치한다. 또한 동쪽산에 대나무를 직접 식수하였다. 계정마당에 16대손 이지락이 식수한 향나무 2그루가 어서각 앞 마당과 사당 출입문 앞에 있다. 그리고 송림을 출입하는 협문을 나서면 좌우측에 2그루의 뽕나무

가 심어져 있고, 안채 화장실 옆 감나무와 주엽나무 서쪽 감나무 역시 16대손 이지락이 심었다. 18대손 이해철은 계정 앞 마당에 화초를 심었고, 외삼문 서쪽 담장밑에 향나무를 비롯하여 뽕나무, 측백나무, 감나무를 식수하였다[문화재청(2002) 독락당 실측조사보고서(本文), pp.173-174.].

- 주 10) 살창은 길이가 2,155mm이며, 높이는 1,450mm, 살의 규격은 40mm(길이)×40mm(폭, 마구리길이)이다. 위에는 용마루 3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부 지반고에서 아랫단 지반고까지는 자연식 쌓기를 하였으며 높이는 620mm이다.

인용문헌

1. 구영일, 이재근(2005). 한국현대 조경작품의 한국성 표현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학회지. 23(2): 116-134.
2. 김봉열(2006). 김봉열의 한국건축 이야기2. 일과 삶의 공간. 파주: 돌베개. pp.120-121.
3. 김은주, 류호창(2002). 풍수지리적 관점에서 본 전통주거 공간구성의 생태학적 특성. 한국기초조형학회지. 3(1): 189-197.
4. 김은희(2001). 생태학적 접근에 따른 건축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석사논문.
5. 류지원, 김정환, 정승호, 김수봉(2003). 공동주택단지의 환경친화형 계획원리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정원학회지. 21(2): 76-86.
6. 문화재청(2002). 독락당 실측조사보고서(본문).
7. 문화재청(2002). 독락당 실측조사보고서(도판).
8. 소현수, 김해경, 최기수(2006). 주거단지 외부공간에서의 전통 재현 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4(2): 86-100.
9. 신상섭, 광병화(1991). 전통주택의 공간구성과 정원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9(1): 31-52.
10. 신상섭, 이명우(1998). 현대 주택정원의 전통계승기법 적용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정원학회지. 16(3): 41-53.
11. 양병이(1991). 한국조경에서의 전통계승. 환경과 조경. 39: 48-52.
12. 이경희(1993). 한국 전통건축의 자연환경 조절방법과 그 원리의 현대화. 대한건축학회지. 37(5): 8-16.
13. 이승민, 최기수(2002). 회재 이언적이 조영관에 관한 연구. 한국정원학회지. 20(3): 15-25.
14. 정윤영, 심종상, 배정환(2011). 독락당 원림 경관조영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39(1): 96-105.
15. 주급원, 최만진(2010). 한국전통민가주택의 친환경적 특성에 관한 연구: 낙안읍성민속마을을 중심으로. 농촌지도와 개발. 17(3): 549-585.
16. 한필원(1996). 전통마을의 환경생태적 해석: 경북 김천시 구성면 상원리 원터마을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2(7): 121-132.
17. 현중영, 박관용(1998). 조선시대 전통주택 풍수의 좌향-양동마을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정원학회지. 16(3): 55-63.
18. 홍형순, 이유경, 김도경(2002). 전통조경요소의 키치적 변용과 그 양상.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0(4): 66-78.
19. Amos Rapoport(1985). 주거형태와 문화. 이규복 역. 서울: 열화당. pp.72-88.

원고접수: 2011년 5월 2일

최종수정본 접수: 2011년 6월 7일

3인 익명 심사필, 1인 영문 abstract 교정필